

인터넷총국 (홈페이지 http://data.rutc.com)	
후원: (국민은행) 682401-01-338981 차동호(인터넷총국)	
분류	구역공과-2017년 35과
제목	전도의 증인- 이사야의 인생스토리
성경	이사야 6:1-13
일시/장소	2017년 8월 27일, 임마누엘 서울교회
강사	류광수 목사 (정리: 차동호 목사)

♣ **성경말씀 (이사야 6:1-13)**

- 1/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
- 2/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
- 3/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
- 4/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
- 5/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 하였더라
- 6/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
- 7/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
- 8/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
- 9/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
- 10/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열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
- 11/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
- 12/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
- 13/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

♣ **구역공과 자료** ♣

♣ **서론**

1.이사야가 붙잡은 언약

- 1)사6:13, “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”
- 2)사7:14, “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”

2.이사야의 언약의 여정

- 1)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.
 - (1)멸망과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(왕하20장, 22-25장)
 - ①자신을 자랑하는 히스기야 왕의 실수 ②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 ③ 언약을 놓친 지도자(시드기야 왕, 왕하22-25장) ④ 시드기야 왕의 무능 ⑤ 강대국 앗수르, 바벨론의 침공 ⑥ 노예시장, 포로가 된 이스라엘 ⑦ 성전이 파괴되고 성물을 빼앗긴 이스라엘
 - (2)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(사6:1-13, 사7:14)
- 2)이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, 소명, 사명의 말씀을 깨달았다.
 - (1)잠시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한 이사야(사40:1-8)
 - (2)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,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(사40:9-31)
 - (3)여호와를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.(사40:28-31)
- 3)이사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.(사60, 62장)
 - (1)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.
 - (2)하나님의 목적은 성도가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이다.
 - ① 랍넛트 회복(사6:13) ② 복음 회복(사7:14) ③ 말씀 회복

- (사40:9-10) ④ 능력 회복(사43:8-21) ⑤ 진도와 선교 회복(사60:1-2, 사62:6-12)
- (3)하나님의 목적은 흑암 속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.(사60:1-22)
- (4)하나님의 목적은 만민을 살리는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다.(사62:6-10)
- 4)이사야는 비록 순교했지만 세상을 그를 이길 수 없었다.(히11:38)

3.이사야에 대한 성경의 증언

- 1)예수님과 사도들도 이사야의 예언을 많이 인용하셨다.(마3:3, 4:14, 8:17, 12:17, 13:14, 15:7, 막1:2, 7:6, 눅3:4, 눅4:17, 요1:23, 요12:38-39, 12:41, 행8:30, 28:25, 롬9:27-29, 10:16, 10:20, 15:12)
- 2)세상이 막을 수 없었던 믿음의 영웅이었다.(히11:32-38)

♣ **결론- 하나님이 찾으시는 100% 믿음의 사람이 되라!**

(The end)

◆ 서론

▶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. ①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메시지 빠지지 않고 훈련 빠지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. 참 대단하다. 아이들도 있다. 그런데 그런 애들을 딱 보니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체를 볼 때 상상 못하는 응답이 온다. ②또 한 종류의 사람은 똑같은 그것인데 늘 말씀 듣는데 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. 본인도 답답하겠죠.

▶자,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이사야처럼 우리가 언약 잡고 응답 받을 수 있느냐? 자,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보셔야 되겠다.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.

▶이사야가 사6장에서 본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.

1)보좌
▶큰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다. 이게 여러분이 할 그것이다.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 아닌가? 물론 복음도 없이 엉터리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문제이지만 보좌의 능력을 정말로 내가 체험을 한다.

2)스랍(천사)
▶여기에 스랍들이 하는 일들을 봤다. 스랍은 뭐니까? 천사들이다. 거기는 뭐가 있는가?

3)언약케
▶보좌에 앉은 그 자리에 스랍들이 움직이는데 언약케가 딱 있다. 그러면서 날개 치면서 막 일을 한다.

4)하나님의 음성
▶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.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나를 보내소서.

5)위기와 해결책
▶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한다. 큰 위기와 해결책을 얘기한다. 어떤 위기를 얘기했는가?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멸망 받게 될 것이다. 이걸 알려주셨다. 앞으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. 이래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다. 자, 여러분들 어떠한가? 아니,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내가 좀 나아지겠지, 이래야 되는데 더 어려워 질 게 확실하다 이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는가?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지 아니했다. 이걸 봤기 때문이다.

1.이사야가 붙잡은 언약

1)그루터기, 새 순
▶보좌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는 뭘 얻었는가 하니까 언약을 얻었다. 어떤 언약이었는데? 아무리 불타고 없어도 다 망해도 괜찮다. 뭘 말입니까? 다 없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. 적군들이 와서 나무를 다 베었는데 뿌리는 베지 못했다. 그루터기다. 여러분보고 하는 말이다. 다 망해도 너는 뿌리가 아직 남아 있지 않나? 그 그루터기에서는 새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. 사람들이 칼로 베고 갔는데 뿌리는 못 뽑아왔다. 그 뿌리 뽑으려면 힘들다. 불을 질렀는데도 뿌리까지 다 태우지 못한다. 그 믿음의 그루터기를 절대 없앨 수 없다. 기억해야 된다.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뿌리를 누가 뽑아가고 위에 썩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다. 오히려 더 잘 되었다. 새 순이 나오는 것이다. 그게 진짜다.

▶우리는 이걸 합쳐서 렘넌트라고 한다. 새 순은 어린 렘넌트다. 저하고 여러분들은 늙었다고 하면 뭐하고 오빠 렘넌트다. 여기에 있는 여자 권사님들은 누나 렘넌트다. 여기에는 어린 렘넌트다. 이렇게 올라온다. 따져보자. 막을 수 있는가? 못 막는다. 그 어떤 정치인이라도 뿌리 안 보이는데서 싹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는가? 더 큰 나무가 된다.

2)사7:14, 임마누엘
▶더 웃기는 것은 이게 확실한 언약을 주는 것이다. 누구나 이 운동 할 수 있지만 이거라야 된다. 복음이라야 된다. 죽은 나무를 살려버리면 골치 아프다. 여러분이 가진 복이다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. 이게 복이다. 이 언약을 딱 잡은 것이다. 얼마나 좋은 언약을 잡았는가?

▶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공부 많이 했는데 실패 한 사람들 많이 봤다.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인데 무슨 언약을 잡았나면 이 언약을 안 잡았다. 가치 없다고 다른 언약을 잡았다. 주로 어떤 언약을 잡고 있다면 내 고집이라는 언약을 잡고 있다. 주로 보면 내 생각이란 언약을 잡고 있다. 주로 그렇다. 제가 보면 다 그렇다. **만나보면 90% 이상 다 하나님의 언약 안 가지고 있고 자기 언약을 가지고 있다.**

▶제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. 몇 가지 물어볼까요? 나는 아이큐가 하나님하고 비슷하다. 손 들 어보시라. 당연히 안 드네요?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. 수준이 같은데? 안 그래요? 하나님은 내 친구처럼 얘기하고 같은 수준인데 내가 뭐하려고 하나님을 믿는가? 그게 맞는 것이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잡아야 된다. 여러분 습관적으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애를 써서 잡는데 정확한 걸 잡아

야 된다.
▶미국 사는 사람 제일 내가 안타깝고 기도가 나오는 게 오래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겠다는 것만 남아 있다. 진짜다. 아닌 사람 몇 명 있다. 김숙 이런 사람은 아니다. 아닌 사람 많다. 먹고 살려고 하는 신경이 모든 오장육부, 세포, 눈빛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. 본인은 모른다. 얼마나 안타깝게 되었는가? 그렇게 되어 진다. 힘이 자꾸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것이다. 안타깝다. 진짜 걸 못 붙잡아서 그렇다.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인다. 아이고, 죽도록 해야지? 뭘 소리하느냐? 당장 학교 가서 교수들야, 너희들 머리 터지도록 공부해야 돼, 잠 4시간 이상 자면 지옥간다.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가? 그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얘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병들 기도 하는 얘이기도 하다.

2.언약의 여정

▶우리는 언약을 그렇게 누리고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니다. 꼭 기억하시라. **언약은 방법이 아니다. 그래서 그 실수를 했다. 언약은 여정이다. 언약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여정이다.** 알아들었죠? 지금 낙심 된 분 계시는가? 하지 마시라. 아직 언약이 성취 되고 있는 중이다.

▶저 인간 내 마음대로 안 될까? 욕하지 마시라. 그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. 그렇잖아요? 어떤 사람 그런다. 내가 성질이 느려서 같이 못 산다. 그것도 욕할 필요가 없다.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놔다. 고치려면 하나님께 내드는 것이다.

▶문제 될 것 없다. 언약만 놓치지 마시라. 언약은 여정이 있다. 그게 중요하다. 언약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쥐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누리고 언약의 여정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작년 제 작년에 렘넌트 팀이 제보고 묻더라. 우리 모임 행사 이름을 뭐하면 좋겠냐? 야, 뭐 할 것 있냐? 언약의 여정이지..

1)구원- 멸망
▶이사야의 여정은 몇 개가 있다. 첫 째다.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 발견을 했다. 이게 첫 번째 여정이었다. 구원과 멸망을 발견했다.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고민하고 기도한 것이다. 그래서 언약 놓친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애절한 것이다. 저 강대국에 올 것이라고 얘기했다.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다.

2)천명, 소명, 사명
▶이걸 보면서 이사야는 어떤 여정 속으로 갔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, 즉 늘 질문해야 된다. 맞나, 안 맞나가 아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. 그걸 보고 천명, 소명, 사명이 다. 아시겠죠?

▶지금 정탐꾼을 뒤에 숨겨 놔다. 같은 나라인데 정탐꾼 숨겼다.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. 사실 적이다. 내가 몰았다. 머리 잡고 안경 낀 정탐꾼 어디 있냐? 뒤에 숨겨 놔잖아요, 신앙 양심대로 해야 될 것 아니요? 그렇죠? 신앙 양심대로 거짓말은 할 수 없다. 하나님은 두 말 하지 마라. 인간들은 두 말 씩 한다. 또 거짓말이잖아요, 그레가지고 여기 뒤에 있다. 잡혀서 죽는 것이다.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요, 표정 하나 안 흘트리고 거짓말을 했다. 그렇죠? 저 쪽으로 갔다. 빨리 가봐라. 그냥 가 봐라고 하면 마음이 그러해서 급하게 빨리 가보라고 했다. 거기에 간 것이다. 못 잡았다. 그때 얘기한다. 그때 이 여자가 라합이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것이다. 몇 가지 얘기 했는가?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시는 걸 봤다고 했다.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시는 일들을 들었다고 했다. 당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. 똑똑한 여자다. 얼마나 똑똑한가? 죽음이 날 상황인데 그랬던 말이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알려줬다. 좀 준비 잘해서 싸워라,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. 적들이 강하니까 준비를 잘해서 가세요, 이렇게 한 게 아니다. 저들의 지도자들은 도망했다. 싸울 힘이 없다. 남아 있는 군인들은 별 별 떨고 있다. 지금 현재 간담이 녹아 있다. 어마어마한 정보다. 그것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다.

▶자, 우리는 일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, 저렇게 해야 되나? 맞나, 안 맞나 늘 그렇게 한다. 그게 큰 실수다. **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? 이러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.** 뭐든지 그렇게 해라. 중직자 여러분들이 자꾸 응답을 너무 많이 놓치면 안 된다.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진짜 질문해봐라. 꼭 여러분들은 하던 불신자처럼 불신자에게 배운 걸 다 한다. 내가 잘했지, 네가 잘했니? 뭘 잘못 했니, 어떻게 해야 되니? 천 날 만 날 밤새도록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. 그건 알고 있다.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? 그게 중요하다. 그게 이사야의 여정이었다.

3)절대 계획
▶세 번째다.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. 그러면 이게 나온다. 절대 계획이 보인다. 절대 계획이 보이면 흔들리지 아니한다. 그렇죠? 내가 지금 돈 1억이 들어올 게 확실하다면 지금 배고파도 괜찮다. 그렇죠? 내가 지금 굶어 죽을 게 확실하다면 배고픈 시간이 날 만 죽이는 것이다. 그러면 오늘 내일 일이다. 그러나 내가 받을 게 확실하다면 아무 상관도 없다. 그걸 본 것이다.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정을 보여줄 것이다. **여러분처럼 어떤 면에서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**

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 많은 능력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처럼 이 시간에 교회 와서 보좌의 비밀 누리는 사람이 필요하다.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만 1번의 언약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. 그렇죠? 저 밖에 눈이 벌겍게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이걸 알려주는가? 그렇죠?

▶저는 아직까지 말이죠, 커피숍에서 커피 짭 마시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서 손 떠는 사람을 못 봤다.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랬지, 갑자기 차 한 잔 마시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차 확 쏟고?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을 안 하신다. 여러분이 언약해도 하나님은 이런 여정으로 가도록 하실 것이다. 멸망과 구원이 뭔가를 본 여러분이 천명만 발견하면 절대 계획이 보인다.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.

3. 지금도 성취(후대)

▶여러분 여기 앉았지만 계속 응답 온다. 이사야가 그랬다. 이사야가 한 모든 예언이 지금까지 성취 되고 있다. 그 중에 몇 개만 뽑겠다.

1)사7:14

▶지금까지 성취 되고 있는 주역이다.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.

2)사60:1-22

▶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다. 일어나서 이 빛을 받해라.

3)사62:6-12

▶그때서야 길을 잃었던 후대들이 기를 보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. 전 세계 후대들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기를 들고 있으면 파수꾼을 향해 달려오게 될 것이다.

◆ 결론

▶마지막 결론이다.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 만민들이 기를 들고 오도록 만드는 것이다.

지금 생각을 바꾸시라. 아이고, 내 같이 나이도 많고 직장도 없고?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. 그렇죠? 마음속으로 그럴 것이다. 내 같은 할매가..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?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. 국회의원들은 기도 안 한다. 여러분들이 한다. 그렇죠? 비교가 안 된다.

또 늙었다고 너무 힘 빠지지 마라라.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. 기도하고 가서 뛰고 그렇게 하시라. 건강 유지도 해라. 전에 방송에 나왔다. 어떤 할매가 뛰다가 어떤 할매와 같이 뛰는 것이다. 이 할매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. 그래가지고 뛰다가 돌이 결 혼했다. 적당하게 돈 100억 남기고 갔다. 할매 뛰 가면서 쓰고? 할매도 할매 나름이다. 여러분은 다르다. 여러분들은 일단 인상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줄 야사시하게 늙어서 뛰라니까? 집에 도 제일 좋은 걸 입고 교회 와서? 남편이 놀래서 어디 가냐 이런 정도로 해라. 왜냐? 복음 전해야 된다. 그래서 그렇다. 우리 같은 사람이? 정말 착각이다. 하나님은 과학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걸 내놓고 듣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.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임마누엘 교회다. 큰 교회들은 힘을 가지고 막 하다가 되기도 한다. 선교 나간다. 나가서 선교 못한다.

▶미안스럽지만 그 사람들이 진도 너무 잘하고 있는 다락방 막으려고 한다. 무서운 결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.

우리가 바누아투 지난번에 집회 갔잖아요, 류광수 목사 간다고 하니가 바누아투 전체가 다 일어난 것이다. 자꾸 제 설교 듣고 말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할 걸 회개해라. 제 방송을 전 세계 다 듣고 있다. 막으려고 바누아투에게 호소할 것이다. 이러니까 그 사람 오면 집회 큰일 난다고 오만 압박을 가한 것이다.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앞에 해륜 유치원을 지어주는 줄 바람에 국회의장 이 사람들이 다 훈련을 받으러 온 것이다. 그 사람들이 목사다. 신학 들을 줄도 안다. 누가 이걸 이단이라고 했냐는 말이다. 그러니까 바누아투 돌아가서 반대하는 사람들 보고 바로 얘기한 것이다.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라. 앞으로 류광수 목사 집회 여기에 하게 되면 당신들 앞으로 좀 곤란할 줄 알아라. 그래서 이 사람이 우두머리 되는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하더라. 나는 바누아투에 진도 총회장이다. 당신 여기 좀 살려면 조심 좀 해야 될 것이다. 오히려.. 그래가지고 집회 열린 것이다. 집회 열렸는데 대통령이 참석했다. 대통령이 지지했다. 이번 메시지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. 전국에다가 방송해라. 한 번 더 얘기했더라. 그 다음에 오는 국경일에 또 내보내라. 요즘 어찌 됐는 줄 아는가? 매일 내보내라. 지금 매일 나간다. 그러니까 복음을 막을 수 없다. 앞으로는 그뿐만 아니라 콩고, 피지 계속 들어갈 것이다.

▶여러분의 많은 것을 참고 기도해주신 그 영적 힘이다.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.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인 힘 가진 기도다. 반드시 열매 온다.

오늘은 제가 좀 길게 했다. 보통 15분 이렇게 하는데 오늘 30분 했다.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좀 많이 한 것이다. 기도하셨다.

(기도)

하나님, 감사드립니다. 중요한 날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알게 해

주옵소서. 오늘 기도의 힘을 확신하게 해주옵소서. 오늘 치유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

(The end)

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

①<http://data.rutc.com> ②<http://www.jcking.net>

총 국 장: 김성호 목사 (☎010-3505-5684)

실무국장: 차동호 목사 (☎010-5375-9383 ☎3759383@hanmail.net)

후원계좌: (국민은행) 682401-01-338981 차동호(인터넷총국)